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8.(일) 12:00
(지 면) 2026. 11. 9.(월) 조간

행안부-기아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로 전북 순창까지 먹거리 접근성 높인다

- 11월 6일(금) 전북 순창군서 출범식 개최, 인구감소지역 주민 먹거리 접근성 제고
- 행안부·기아 '지방소멸 대응 상생 민관협력' 농촌 먹거리 개선 서비스
- 경북 의성 이어 전북 순창까지 확대…지역주민 불편 해소, 새 활력 계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6일(금),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순창군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을 비롯해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영일 순창군수, 기아 이덕현 상무, 초록우산 신정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신선식품을 직접 배송하여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기아는 지난 3월 체결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를 전북 순창군까지 확대했다.

* 신선식품 배송 실적: 112개 마을, 1,660회 방문, 10,003명 이용('26. 9월)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전문성, 지역사회의 실행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기아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신선식품 배송에 필요한 전용 차량(PV5)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초록우산과 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신선식품 배송 및 서비스 운영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와 순창군은 배송 기반 조성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선식품 배송서비스의 운영 성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춰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식품 배송을 넘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생활돌봄 등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순창군까지 확대한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이 더 많은 인구감소지역으로도 확산되어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허송근 (044-205-34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